



주식 하락장에서도 수익낸 ...

[지폐인물열전] (35) 율곡 이이...목숨 걸고 직언한 유학자

기사입력 2015.10.26 09:39

최종수정 2015.10.26 09:39

댓글 (4)

가- 가+

율곡 이이(1536~1584)...정론과 직언으로 우뚝 선 유학자



5000원 짜리지폐 앞면에 실려 있는 율곡 이이 인물초상

■9번이나 장원급제해 ‘구도장원(九度壯元)’으로 불려

“국가의 참혹한 화가 지금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여위고 쇠약한 백성에게 부역을 시키고, 국맥을 상하게 하니 앞으로 다가올 근심과 환란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병들 기미를 본 이상 도저히 침묵을 지키지 못해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 없이 말씀을 올렸으니, 직책을 뛰어넘어 말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디자인의 차이가 매출을 만든다!

*본투 제작 씬 견적 받아보기

CLOSE

정이 계속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두려움 없이 붓을 잡고 상소를 올렸다. 당시 율곡의 벼슬은 지금으로 치면 외교통상부나 교육부 계장에 해당하는 예조좌랑(禮曹佐郎)이었다.

율곡의 본관은 덕수 이씨로, 아버지는 원수(元秀), 어머니는 사임당(師任堂) 신씨이다. 아버지 이원수는 수운판관,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어머니 사임당은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널리 알려진 현모였다. 사임당은 율곡을 낳을 때(중종 31년·1536년 12월) 검은 비늘에 금빛목걸이를 목에 두른 용이 동해 바다로부터 불쑥 날아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꿴다고 한다. 그래서 사임당은 율곡의 아명을 '현룡'으로 지었다. '이현룡'이 '이이'로 바뀐 것은 율곡의 나이 11살 때이다.

그 무렵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는 중병에 걸려 목숨이 촌각을 다투고 있었다. 율곡은 조상을 모신 사당에 들어가 아버지 대신 자신이 죽도록 해달라고 비는 한편 자신의 팔뚝을 찢러 거기서 나오는 피를 신음하는 아버지 입 속에 흘려 넣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이원수는 낮잠을 자다 꿈속에서 백발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은 이원수에게 “당신의 아이는 분명 나라의 큰 유학자가 될 것이요. 그러니 이름을 이(珙)로 바꾸시오”라고 말했다. 이원수가 “내 아들은 용을 보고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현룡이라 했는데 이름을 바꾸라니요”라고 묻자 백발노인은 이렇게 답했다. “이(珙)란 귀걸이를 뜻하는데 매우 귀한 것을 말한대요. 그러므로 꼭 바꿔야 하오.” 이로 인해 율곡의 이름은 이현룡에서 이이로 바뀌게 됐다.

율곡은 7남매 중 다섯째로 외가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6살 때 서울 수진방(지금의 수송동과 청진동)의 아버지 본가로 올라와 10여년을 살다가 16살 되던 해 봄에 삼청동으로 이사했다. 어릴 적부터 총명했던 율곡은 외부로 나가 수학하기보다는 주로 사임당에게서 사서(四書)를 비롯한 여러 경전을 배웠다. 외할머니 이씨가 석류를 가리키며 “저게 무엇 같게?” 라고 묻자 어린 율곡은 잠시 쳐다보더니 “석류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부서져 있어요”라는 옛 시귀를 읊어 대답했다고 한다.

7살 때는 이웃에 사는 진복창이라는 친구가 교활하고 간악해 보여 글을 지었는데, 그 능숙하고 의표를 찌르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8살 때는 파주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가 가을의 정취를 시로 읊었으며, 10살 때는 강릉 경포대를 둘러 장문의 ‘경포대부’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노장사상에 대한 그의 폭넓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학(家學)으로 학문을 닦은 율곡은 13살 때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하고, 21살 때는 한성시에 급제했으며, 23살에는 별시해에 천도책으로 장원급제하는 등 관직에 나가기까지 무려 9번이나 장원급제해 ‘구도장원(九度壯元)’으로 불렸다.

율곡은 16살 때 사임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큰 실의에 빠진다. 탈상을 하고도 밤낮으로 흐느껴 울던 율곡은 19살 때인 1554년 금강산 마하연에 들어가 의암이라는 법명으로 1년 간 용맹정진(勇猛精進)한다. 26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자 경기 파주 어머니 묘에 합장한 뒤 3년 동안 여묘

경림은 39살에 낳았고, 둘째 아들 경정은 44살 때 낳았다.

율곡이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과 만난 것은 23살이 되던 해 봄이었다. 율곡은 자신보다 35살 많은 퇴계의 도산서당을 찾았다. 비록 퇴계의 집에 머문 기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유림의 대가와 가졌던 첫 대좌였던 만큼 율곡은 퇴계에게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히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율곡은 29살 때 대과에 장원급제한 뒤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임명돼 첫 벼슬길에 오른다. 율곡은 남에게 보이는 학문인 과거(科擧)를 자기 스스로를 완성하는 도학(道學)에 비해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당시 제도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기(修己)뿐만 아니라 치인(治人)도 중시했던 율곡은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9번이나 과거를 보게 된 것이다. 관직에 오르면서 율곡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려 애썼다. 31살 때 율곡은 동료들과 더불어 시국의 급선무라 할 '시무삼사(時務三事)'를 명종에게 상소했다. 상소 내용은 '마음을 바로 해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어진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할 것', '백성을 편안케 해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 등이었다.

그해 겨울 율곡은 인재를 선발하는 이조좌랑으로 임명돼 사사로움을 버리고 나라의 동량(棟梁)들을 뽑았다. 36살 때 청주목사로 임명된 율곡은 여씨향약(呂氏鄉約)을 토대로 '서원향약'을 만들어 고을의 자치능력을 키우려 했으나 병을 얻어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강원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율곡 이이의 초상화

■선조에게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리며 개혁정치를 주문

율곡이 선조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승정원 우부승지로 일하던 39살 때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리면서부터다. 율곡은 ‘만언봉사’에서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실사(實事)에 힘쓰며,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조는 비답(批答·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다. 이런 신하가 있는데 어찌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겠느냐.”

그해 10월 황해도 관찰사로 임명된 율곡은 부임한 즉시 상소해 황해도 민폐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성학집요>를 저술해 선조에게 올렸다. 그러나 선조는 “이 글은 성현의 말씀과도 같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불민한 사람은 시행하기가 어렵겠다”고 했다.

선조의 우유부단으로 자신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자 율곡은 관직을 버리고 해주 석담에 은둔하며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썼다. 율곡이 매번 벼슬을 사양하자 어떤 이가 “물러가려고 청해서 물러감을 얻었으니 무척 유쾌할 것이지만 저마다 모두 물러날 뜻을 가지면 누가 나라를 붙들 것이오”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율곡은 “위로는 대신에서부터 아래로는 낮은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물러날 뜻을 갖기만 한다면 나라의 정세는 저절로 큰 길을 가게 될 것이오.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걱정은 버려도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율곡은 선조의 계속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재출사해 대사간을 맡게 된다. 이때 영의정 박순은 “율곡이 오랜만에 조정으로 돌아오니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율곡은 1582년 겨울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한다. 이는 율곡이 벼슬길에 오른 이후 조정에 올린 개인적인 의견 중 요점만을 정리해 훗날 법이 될 만한 것을 추린 것이다. 그는 1565년 명종 즉위년에서부터 1581년 선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17년 간 벌어진 일을 해서(楷書)로 기록해 3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율곡은 1583년 당쟁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든 동인의 탄핵으로 사직한다. 1575년(선조 8년) 동인과 서인의 당쟁이 표면화하자 율곡은 중도에서 중재를 꾀했으나 동서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당시 정계의 원로이자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격이었던 동고 이준경은 개혁론을 편 율곡에 대해 “경박한 주장을 일삼는다”고 폄하하기 일쑤였다. 율곡도 동고를 ‘완곡하고 노회한 정치가’로 간주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동고는 자신의 저서 <임종유소(臨終遺疏)>에서 “율곡은 자신의 품행 단속은 하지 않고 공연히 큰소리만 치며 봉당(朋黨)을 맺어 분란만을 일으킨다”고 했다. 그러자 율곡은 “옛 분들은 죽음에 다다르면 그 말이 착한데, 지금의 사람들은 죽음에 다다르면 그 말이 악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로 말미암아 동인은 율곡에게 “싸수가 노란 소인(小人)”이란 극언을 퍼부었고, 결국 이 파쟁은 1579년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기묘사화(己卯士禍)의 발단이 된다. 당시 율곡은 봉당을 국가 정치를 문란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소인이 무리를 이루듯, 뜻을 같이 하는 군자들끼리 집단을 이루는 불가피한 정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만 양병설’ 주장했으나 선조에게 목살 당해

를 지낸다. 그 무렵 율곡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다.

“국력의 쇠약함이 심한 지라 10년도 못 가서 반드시 나라가 무너지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니 10만 병졸을 미리 양성하여 도성에 2만, 각 도에 1만씩을 두어 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무재(武才)를 훈련시켜 6개월로 나눠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해야 하며, 변란이 있으면 10만 명을 합쳐서 지키게 해 위급할 때 방비를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애 유성룡은 이에 반대한다. 서애는 “평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시킨다”는 반론을 폈고, 선조는 결국 율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율곡은 서애에게 “속유(俗儒·식견이나 행실이 변변치 못한 선비)들이야 그렇다 해도 사리에 밝은 서애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라며 자신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원망했다.

율곡은 영면하기 10여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북방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떠나는 서익에게 병조판서의 경험을 전하기 위해 아들과 조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생 우를 앉혀놓고 자신의 말을 대신 써 전하도록 했다. 이것이 '육조방략'이며, 율곡의 생애 마지막 글이 됐다. 율곡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거뜰해 되뇌인 것은 위태롭기만 했던 조선의 앞날이었다.

율곡은 1584년(선조 17년) 1월 눈을 감았다. 율곡은 손톱을 깎고 목욕을 마친 뒤 동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숨을 거뒀다. 그런데 대체 무슨 한이 그토록 많았던지 죽은 지 이틀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성학집요> <격몽요결> 등 당대의 명저를 남긴 대학자 율곡의 부음이 전해지자 선조는 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애통해 했고, 수랏상에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선조는 “나라를 위해 몸이 여위도록 정성을 다해 애쓴 율곡이야 무엇이 슬프리오? 큰 물 가운데서 노를 잃었으니 나아말로 애통하도다”라며 슬퍼했다.

대제학을 지낸 이정구가 지은 <율곡시장(栗谷諡狀)>에는 “율곡이 운명한 뒤 집에는 한 섬 곡식이 쌓여 있지 않았다. 서울에 집이 없던 처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 옮겨 살며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다. 친우와 선비들이 쌀과 포목을 내어 서울에 집 한 채를 사주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시리즈 끝>

<박구재 기획·문화에디터 goodpark@kyunghyang.com>

이시각 관심정보

AD

"관절통증" 연골완벽재생 병원 안가도 돼..충격

'붙이는' "이것" 비야X라 "성생활이" 달라진다!

국내최초 "바르는" 비야X라 70배 효과..성생활 달라진다!

로또 당첨자 충격고백! 비밀풀려 "줄줄이당첨!!"

남성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지속 가능해?!

인천 여고생 졸업 후, 男선생과 4년간 몰래...충격!

연재 지폐인물 열전



오늘의 인기정보

AD

- ↳ 도련님..! "너무쪼여" 안에 쌀것같아..하악!
- ↳ "임플란트" 절대 하지마세요..! "충격"
- ↳ 고개숙인 남성, 밤마다 "이것" 꼭 챙겨야..충격!
- ↳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화제!!
- ↳ 로또용지 뒷면, "1등당첨" 비밀 숨겨져..화제!!
- ↳ 로또 당첨자 충격고백! 비밀풀려 "줄줄이당첨!!"

댓글 (4)

댓글쓰기

houndon6452

2016-05-10 16:32:54

조선이 다 썩어있는데 직언이 않통하지

ju****

2016-02-17 06:03:18

동고 이준경은 죽을 때 유언 격인 상소문에서 율곡 이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ju****

2016-02-16 22:29:08

박구재 기자님
율곡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

추천 콘텐츠



This Is the Social Slot App Everyone in Portland is Addicted To

WeeklyPenny

No More Shopping: How To Make Amazing Food And Save Time

X CLOSE

‘인보사’ 소송...“피해 입증 어려워 배상 장담 못해”

대법원 선고 D-1, 이재용과 삼성 긴장 최고조

투데이 핫 인포

AD

- 1 "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
- 2 산악회에서 만난 유부녀, 정체 알고보니..”충격”

인기있는 정보

AD

고맙다 딸! 한화손해보험 유병자암보험

카페창업은 지고 '이' 창업이 뜬다

'비염'으로 막힌코, 콧속에 '이것' 넣으니 땡!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팔면” 얼마?

입냄새, 잇몸 염증 감쪽같이 사라져..! '무료체험'

오늘의 포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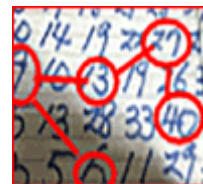
AD



배우 박원숙 즐기세포 바르고 20代 얼굴로..



"관절통증" 연골재생 99% 가능해..충격!



로또1등 무더기당첨 농협본점 비상걸려

오늘의 주요뉴스



주부나 직장인이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한다...그런데

주부나 직장인이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플랫폼이 나왔다. 일반인이 택배를 배달하는 ‘쿠팡플렉스’, 음식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등에 이어 일반인 배송시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 사내벤처 ‘디버(dver)’팀은 8일 퀵 서비스...

“앞글자 달라도 LED TV일뿐”...LG, 삼성 QLED 작심비판 광고

지역화폐는 착한화폐'일까

LG 새 듀얼 폰 V50S...게임에 특화는 기본, 검색도 편리

한국에도 ‘소파이’ 같은 ‘P2P 금융’ 기업 나올까

저물가 비상등에...정부 “공급 변동 탓” KDI “수요 위축 탓”



일본에 수출 규제 당해도... '렉서스 + 도요타' 수입차 판매 3위

[NGO 발언대] 청문회장의 동문들에게 묻는다... '청년'을 아냐고

빠질 듯 안 빠질 듯...롤러코스터 타는 몸무게 원인이 뭘까

가을 되니 우수수? 그럴 수 있지만 이렇다면 '탈모증' 의심!

LG의 '작심 저격'... "삼성 8K TV는 8K가 아니다"

화보

더보기 >



'스파이더맨의 그녀' 젠데이아 콜먼



켄달제너, 살짝 드러난 볼륨감



만화천국 바로가기 >

종합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일본에 수출 규제 당해도... '렉서스 + 도요타' 수입차 판매 3위

[NGO 발언대] 청문회장의 동문들에게 묻는다... '청년'을 아냐고

빠질 듯 안 빠질 듯...롤러코스터 타는 몸무게 원인이 뭘까

가을 되니 우수수? 그럴 수 있지만 이렇다면 '탈모증' 의심!

LG의 '작심 저격'... "삼성 8K TV는 8K가 아니다"

홈	이코노미	부동산
경제포토	라이프	오피니언
화보	자동차	
많이 본 뉴스	IT·과학	

검색어 입력



X CLOSE

가- 가+

맨위로

PC버전

전체서비스

로그인

Copyright ©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X CLOSE